

신앙 강령

『교리와 장정』 ¶ 106

¶ 106. 글로벌 감리교회의 신앙 강령. 신앙 강령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범적인 교리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앙 고백은 보편적인 교회의 신조 전통을 확인하고, 우리의 개신교 신앙이 지닌 신학적 유산을 표현하며, 우리 교회 특유의 웨슬리안-감리교적 특징과 관심사를 명확히 밝힌다. 신앙 강령은 기독교 전통 신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니케아 신조(서기 381년)의 원문에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나오신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교회와 글로벌 감리교회 내의 많은 교회가 성령께서 성자에게서도 나오신다는 추가 선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글로벌 감리교인들은 예배와 신앙 교육 모두에서 니케아 신조를 사용할 때 이미 “그리고 성자”라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생략할 자유가 있다(¶ 105). 니케아 신조에 관한 이러한 관행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인들은 제III조 「성령」의 첫 문장에서 “그리고 성자”라는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앙 강령은 성경에 의해 확증되며, 우리 교회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신앙 강령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겨진 믿음”(유다서 3절)을 선포하는 구성 기준이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신실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을 막는 역할을 한다.

I. 성 삼위일체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살아 계시며, 영원하시고,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과 사랑이 무한하시며, 모든 사람의 선익과 구원을 위해 은혜롭게 다스리시며,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며, 존재와 위엄과 권능과 영광에서 영원히 하나이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믿는다.

II.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됨도 없고, 혼동됨도 없고, 변화됨도 없이 완전하게, 그리고 결코 떨어질 수 없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신성에 있어서 그분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다. 인성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시되 죄는 없으시다. 성부에게서 나시어 영원히 독생자인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참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중보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케 하셨음을 믿는다. 단번에 드러진 그리스도의 봉헌은 온 세상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요, 구속이요, 화목이요, 배상이니, 이 밖에 죄를 위한 다른 배상은 없다.

III. 성령

우리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발출하시는 성령을 믿는다. 그분은 성부 및 성자와 한 본체이시며, 위엄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그분들과 동등하시다. 성령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성령은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깨닫도록 책망하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그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연합시키시며,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은 성부 및 성자와 더불어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교회를 능하게 하신다. 성령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보증이 되사, 신자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IV. 창조와 섭리

우리는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지음을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자유롭게 드러내시어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과 지혜로 온 피조 세계를 쉬지 않고 붙드시며 다스리시며 보존하신다. 인간의 자유 의지와 책임은 이러한 섭리의 테두리 안에서 작용한다.

V. 인간의 본성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인간의 본성이 선하게 창조되어 존엄함을 입었음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힘쓰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또 그의 선한 창조 세계를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 직분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이제 죄의 부패에 빠졌으며, 본래의 의로운 상태에서 매우 멀리 떠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해아릴 수 없이 귀한 존재로 남아 있다.

VI. 죄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인간이 본래 지닌 의에서 타락하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 있음을 믿는다. 원죄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부패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놓여 있는 상태이다. 죄는 우리 인간성의 모든 부분을 부패시킨다. 선행은총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능력도 없다. 우리에게 있는 선한 뜻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온다.

VII. 교회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신자들의 교제공동체임을 믿는다. 교회는 그 본질과 소명에 있어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는 구속의 교제공동체이다. 자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은 감독의 안수를 통하여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진다.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신자들을 세우고,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VIII. 성경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권위 있는 말씀임을 믿는다. 구약은 신약과 상반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확인하는 모든 것은 참되며, 성경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무오한 규범이다. 이 책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거나 성경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경에 영감을 주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성경 해석을 밝혀 주신다. 성경은 교회 선포의 기초이며,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성령께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구약 성경의 정경에 속하는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다. 신약 성경의 정경은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다.

IX. 성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증표나 상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믿는다. 따라서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성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믿음을 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오직 두 가지, 곧 세례와 주의 만찬뿐임을 믿는다.

세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이 세례는 가시적인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는 표징이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믿음의 가족에 속하게 됨을 보여주는 표징이자 인침이다. 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나타낸다.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이 믿는 자들의 자녀에게도 주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유아는 기독교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대상이며, 그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세례받은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공적인 신앙고백과 평생 제자로 살겠다는 개인적 헌신으로 자신의 세례를 확인하는 입교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은 교회의 특별한 책임이다.

주의 만찬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 만찬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의 성례이며,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게 됨을 믿는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또 서로 간에 누리는 사랑과 연합의 표시이다. 성찬의 성물 자체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며 각 성물의 본질도 변하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은혜의 수단인 이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신비롭게 전달하신다. 이 성례를 경건하게 받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X. 공적 예배와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생명에 필수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임을 믿는다. 주일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영적 성장과 우리의 성화에 꼭 필요하다. 우리는 공중 예배의 순서를 예배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교회가 조정할 수 있음을 믿는다. 예배는 언제나 모인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드려야 하며, 성경에 부합하고, 교회의 질서와 규율에 따라야 한다.

XI. 회개

우리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는다. 참된 회개는 악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며,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으로 돌이키는 데서 드러난다. 회개는 겸손의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칭의를 위한 준비로 주시고,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자라 가며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지속적인 은혜로 주신다.

XII. 의롭다 함과 중생

우리는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임을 믿는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선언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나 개인적인 공로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속죄 제사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원죄나 자범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초대받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적인 주님과 구주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가장 건전한 교리이며 큰 위로가 된다.

우리는 중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 안에서 내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임을 믿는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의지와 정서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중생은 우리의 초기 성화이며, 그 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추구하면 점진적으로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된다.

XIII. 선행

우리는 선한 행위가 믿음의 마땅한 열매요 중생의 뒤를 따르는 것이나, 우리의 죄를 제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능력은 없음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선한 행위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에서 나옴을 믿는다. 선한 행위를 통하여, 곧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나타난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신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이들을 위한 공로가 쌓이는 것도 아니다.

XIV. 온전한 성화

우리는 온전한 성화가 완전한 사랑과 의와 참된 거룩함의 상태임을 믿는다. 이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온전한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들은 그 후에 원죄에서 깨끗하게 되며, 생각과 말과 행위에 스며든 원죄의 오염에서 씻김을 받는다. 이러한 신자들은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서 흠 없이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성화시키는 은혜를 받을 길을 예비한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 곧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함이나 무지나 실수에서 우리를 건져 주지 않으며,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도 건져 주지 않음을 믿는다. 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함 안에 거함으로써 계속되는 시험, 특히 영적 교만의 시험을 경계해야 한다.

XV. 심판과 내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으며, 악인은 영원한 정죄에 이르고 의인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영생에 이름을 믿는다.

2026년 9월 5일 토요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됨.